1,2,3 RUTC 응답 24 : 세계를 살리는 무관의 제왕(벧전2:9) 11/27/2022

지난 주간에 제19차 미주 렘넌트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전체 주제는 “2030-2080을 지금 준비하라”이었다. 1세대들은 2030-2080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하시는 멋있고 위대한 일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면서 렘넌트들을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2세대 렘넌트들은 ‘내가 그 시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그 시대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위해 준비한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는 리더 수련회에서 선포되었다(수요예배 참고). 본 대회는 무엇을 위해 준비할 것인가이다.

제목대로 여러 혼란과 어려움에 빠질 세계를 살리는 영적 리더, 영적 왕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왕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 지도자이다.

왕은 왕인데, 제사장 축복을 함께 누리는 왕이다.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된다. 왕은 왕인데 왕관이 없는 왕이다.

무슨 말인가? 세상의 왕(리더)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럴 수 있는 영적 비밀도 없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욕심, 위치, 이런 것들이다. 왕관은 그런 것의 상징이다. 성경에 사울 왕이 모델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왕(리더)는 자기의 욕심, 위치가 상관없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실제로 왕에게 답을 주고 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요셉 같은 인물이다(창41:38). 그런 사람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선다면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하나님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1.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면 된다.

1)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야망).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겠다는 것이다.

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자로 창조하셨던 것이다(창1:27)

②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고 했다(창2:7).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을 부으셨다는 것이다(창2:7)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달란트이다.

③ 그때 인간은 에덴 동산의 행복이 있었다(창2:1-18).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접 축복하신 것이다.

거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것이 인간이다.

2) 창3장에서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①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킨 것이다.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신분), 그 권세와 능력 을 가진 자가 되고(달란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다(전도와 선교)

② 이 언약을 깨닫고, 확신을 가진 순간 이미 우리는 왕이고, 리더이고, 써밋이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바꾸어 놓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닭장에서 크는 어린 독수리)

③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영적 근본, 기본, 기초를 계속 만들어가면 된다.

영적 근본은 내 영적상태이다. 뭔가 하나님과 통한다(영성). 영적 기본은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영적 인성)

영적 기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영적 실력).

2. 이 영적 근본, 기본, 기초 속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이다.

1) 불신자에게도 달란트 주셨다(일반 은총).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2)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르다(특별 은총)

①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바꿀 정도의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천국의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라고 한다(중국어의 “천재”라는 단어가 하늘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뜻)

② 우리의 영적 근본(영성), 영적 기본(영적 인성), 영적 기초(영적 실력) 속에 이 달란트가 담겨야 한다.

그때 정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바꾸는 참된 왕(리더)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19세기에 미국을 바꾼 아브라함 링컨, 디엘 무디, 존 와나메이커, 화니 크리스비 같은 인물이 모델이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편집하고, 나만의 기도 속에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 전도할 정도로 내 인생을 전도자의 모습으로 디자인하라.

3. 이제부터 할 일이다. 특히 렘넌트들이 지금 시급하게 훈련해야 할 것이다.

1) 지금부터 내 각인을 바꾸어야 한다. 내 뇌에 꽂혀 버린 정도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내 안의 상처, 실패 의식, 경쟁 의식, 세상 기준에 잡힌 생각들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

① 그리스도는 모든 운명, 저주, 문제를 끝냈다(요19:30). 이것이 복음이다. 더 이상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라.

② 이 축복을 누리고, 보좌를 바라보라. 이것이 기도이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체험해야 한다.

③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전도이다. 전도 훈련이 곧 지도자 훈련이다.

모든 사람과 소통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9가지 소통). 편견이 생기고, 막히면 전도도 불가능하다.

④ 모든 것을 선교에 방향을 맞추라. 분명히 237 모든 나라 살릴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선교이다.

2) 내 안에 뿌리를 바꾸어야 한다. 잘못된 각인이 우리 안에 쓴 뿌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① 내 지금의 환경, 현실, 시대 문제도 상관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한다.

요셉이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도 거기서 낙심, 좌절하지 않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다.

결국은 그것이 모든 환경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지도자 훈련이었다.

② 모든 문제 사건에서 기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다윗이 혼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 것이다.

귀신 들린 사울 왕에게 쫒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며 훗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왕이 된 것이다.

3) 늘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와 축복을 보는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① 지금의 내 모습, 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Covenant). 미리 보고(Vision), 미리 누리고(Dream), 미리 기도하고(Image), 미리 훈련하는 (Practice) 것이 CVDIP이다. 믿음 가지고 지속하라(24).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25), 보좌 축복이 임한다(영원)

② 지금 건강도 만들고 힘을 키우라.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이다.

하나씩 체질을 바꾸어가라. 성령이 역사할 수 밖에 없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다(고전3:16).

그때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속이는 흑암도 꺽인다. 마귀가 역사할 수 밖에 없는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나를 살려 세상과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고후5:20)라고 하셨다. 2030부터 2080을 지금 준비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한다.